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 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0.9



찬미
받으소서
혁명
챌린지



‘찬미받으소서 혁명’ 챌린지

JPIC나눔

‘찬미받으소서’와 ‘창조 시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 편리함, 소비주의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에 따른 기후위기와 감염병은 결국 인간의 삶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환경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셨고 모든 이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생태적 회개’)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힘쓰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동방정교회 총대주교께서 1989년에 시작한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을 가톨릭교회가 수용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이에 따라 내년 5월 24일까지를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부터 다가오는 10월 4일까지를 특별히 ‘창조 시기 season of creation’으로 정하셨습니다. 10월 4일은 생태환경의 주보성인이신 성프란치스코 대축일이므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찬미받으소서’라는 제목도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 일명 ‘태양의 찬가’ 첫 구절을 회칙에 인용함으로써 붙여진 것입니다.)

프란치스칸 ‘찬미받으소서 혁명’ 챌린지

교황님의 촉구에 따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뿐 아니라 성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르는 모든 수도회와 신자들(‘프란치스칸 가족’)은 이번 ‘창조시기’(9/1~10/4) 동안 생태계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칸 가족들은 ‘찬미받으소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챌린지를 벌이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실천이나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이를 SNS에 올리는, 일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을 바꾼 대부분의 변화는 ‘아래’에서 일어나 ‘위’를 흔들었습니다. 즉 일반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요구하여 상급 권위자들이 움직이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계 보존, 특히 기후위기를 위한 변화는 위, 아래 할 것 없이 일어나고,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지난 2018년 여름의 끔찍한 폭염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해마다 폭염과 자연재해에 시달리면서 그 피해를 다른 피조물과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떠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도 누군가의 손뼉 몇 번으로 시작한다는 표현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과 운동, 이 바람이 위에서 달려오는 바람과 마주 휘몰아쳐 온 세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 정책을

바꾸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창조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FMM 정의평화창조질서보존 위원회

〈‘찬미받으소서 혁명’ 챌린지〉 참여방법



1. 피켓을 만든다.

피켓 내용은 환경보호를 위한 생각, 개인의 약속을 적습니다. 간단하게 “찬미받으소서 챌린지”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첫 장 사진 참조)

2. 사진을 찍는다.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3. SNS에 사진을 올린다.

사진을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공유할 SNS가 없으시다면 저희 수도권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https://www.facebook.com/fmm.korea/>

우리의 작은 노력이 교회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찬미받으소서 혁명’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요!!!

주님의 종

나의 성소 이야기

지난 해 어느 시기동안, 하느님께서 내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주님의 종’임을 보여주셨다. 이는 내게 특별한 체험이었는데 성경에서만 존재하던 ‘주님의 종’이 현실에서 어떤 사람과 마주앉아있는 어느 순간,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보인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이 현상에 대해 놀라움과 감동에 젖어있었고 세 번째 종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나를 그리로 부르고 계심을 알아차렸다.

왜 하필 ‘종’일까. 용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거부감은 신학을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개념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서 일부러 ‘동반자’ 혹은 ‘친구’ 등의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려 노력했고 자칭 ‘성경적 개념’으로 분류하여 그야말로 ‘개념’에만 묶어두었다.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서 성경이 현실이 되어 신학을 신앙으로 옮겨

주셨다.

앞서 말한 세 사람에게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하느님께 나아가서, 하느님을 완전히 입었다. 옷을 입을 때에는 바깥 날씨와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내 몸을 알아야 한다. 날씨와 목적에 따라, 내 사이즈와 소유하고 있는 옷 중에서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그렇다.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받은 은총과 빛을 통해서 세상에 그대로 전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모두 하느님의 것으로 드리고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종’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깊고 친밀할수록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수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반자’, ‘친구’가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자들은 즉시 그물을 두고 쫓아가 동고동락하며 ‘친구’라 불렸고,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집을 수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교를 정화시키며 모든 피조물과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렇게 오늘에 이르러서는 무언지 모를 두려움에 묶여있던 이 작은 존재를 수도생활로 부르셨고 소소한 일들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점점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이제 당신을 완전히 입으라고 초대하신다. 이에 떠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 당신의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회헌 1항 참조) 이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모든 사람’ 중 하나로서 구원됨과 동시에 나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도구로 쓰시려 힘이 크게 와 닿는다. 둘 중 무엇이든 괜찮다. 모두 하느님과 내가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있기 때문이다.

66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99
(루카 1,38)



하느님은 적당한 그릇을 찾기보다 적합한 그릇을 만드는 분이시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소소한 일 하나까지도 그분의 의도와 의미 없는 일이 없더라. 이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덜 아파했을까? 아니다. 아팠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 사랑하게 되었다. 부적 콧노래가 많아지고 웃음이 헤쳐진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하느님께서 계획하고 함께하신 지난 모든 여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하느님을 완전히 믿는 은총을 허락하시어 친히 이루어 가실 모든 여정에 기쁜 찬미를 드린다.



조란 마르타. FMM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고대완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구영희	구유희 권순익 권영오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	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일	김동현	루가	김두현	김두환(김철형) 김득수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규	김병수	케냐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성용	김성원	김성환	김수경	김수자	세실리아	김순철	김시윤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	프란치스코	김영옥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정숙마리아
김재욱	김정웅(김명신)	김정임	엘리사벳	김정주	김정혜(정구충)	김종연	김주옥
김준희	김지혜	김진숙	알데군다	김진식	김춘자	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태욱
김현숙(최지명)	김혜겸	김호생	김호송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유리	노정애	류순자	명영희 문성식 문준식
민정웅	박규성(정현정)	박라희(임영희)		박말순	박민선	박병옥	박병주 박성현
박성길(정은아)	박성준	도미니꼬	박수경	박순옥	박승민	박양순	박용숙데레사
박원서	박윤실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미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	박향식	박현희	박홍권	박화자 박효정 박희순
방상만	사도요한	방진	배수정	배윤숙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삼성동	성가정	나눔회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석상령 성상모
성영주	성욱이	소재록	손순덕	손윤희	손은주	손정례	송비아 송순이 송영희
송승윤(김영임)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승일	신재진	신주화	심귀선 안미령
아가맘2호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오숙자	오영희 우복명
오옥형(최민귀)	우영희	운남동	빈첸시오	원ENG	원세경	유미경	유병춘 유시연
유영재	유은분	유은정	유춘성	유혜정	헤레나	유희숙	프란치스 욱동배 윤경숙
윤근자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	데보라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 윤순희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관훈	이광진(홍기원)	이광희	이귀순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복순	이상문	이성엽	이성혜(유주영)	이연신	이연실	이연재	이영복 이영애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윤신	이은정	이은주	이인숙(경동메디칼)	이인숙로사
이정란(최윤)	이정숙	데레사	이정숙	마리아	이정숙	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	소피아	이종옥	이준우	이지인	프란체스카	이창석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혜숙	이홍식	인용석	인후작	은형제	임도원(임영희) 임승욱
임지원	임진수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욱	장영문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현아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복순
정부강	정석영	정성민	정소영	정수인	정숙자	정영숙	정옥희 정재영 정진명
정재훈(정지호)	정혜경	정혜숙	플로라	정희	파키스탄	조근미	조남섭 조명숙
조상위	조수미	조혜영	조화숙	조희공	주)가나	스틸	조희무 진숙인 진신아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말영(박희수)	최미라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연희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인석	최일순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최효순 최희선
추상식	추수옥	케냐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	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					